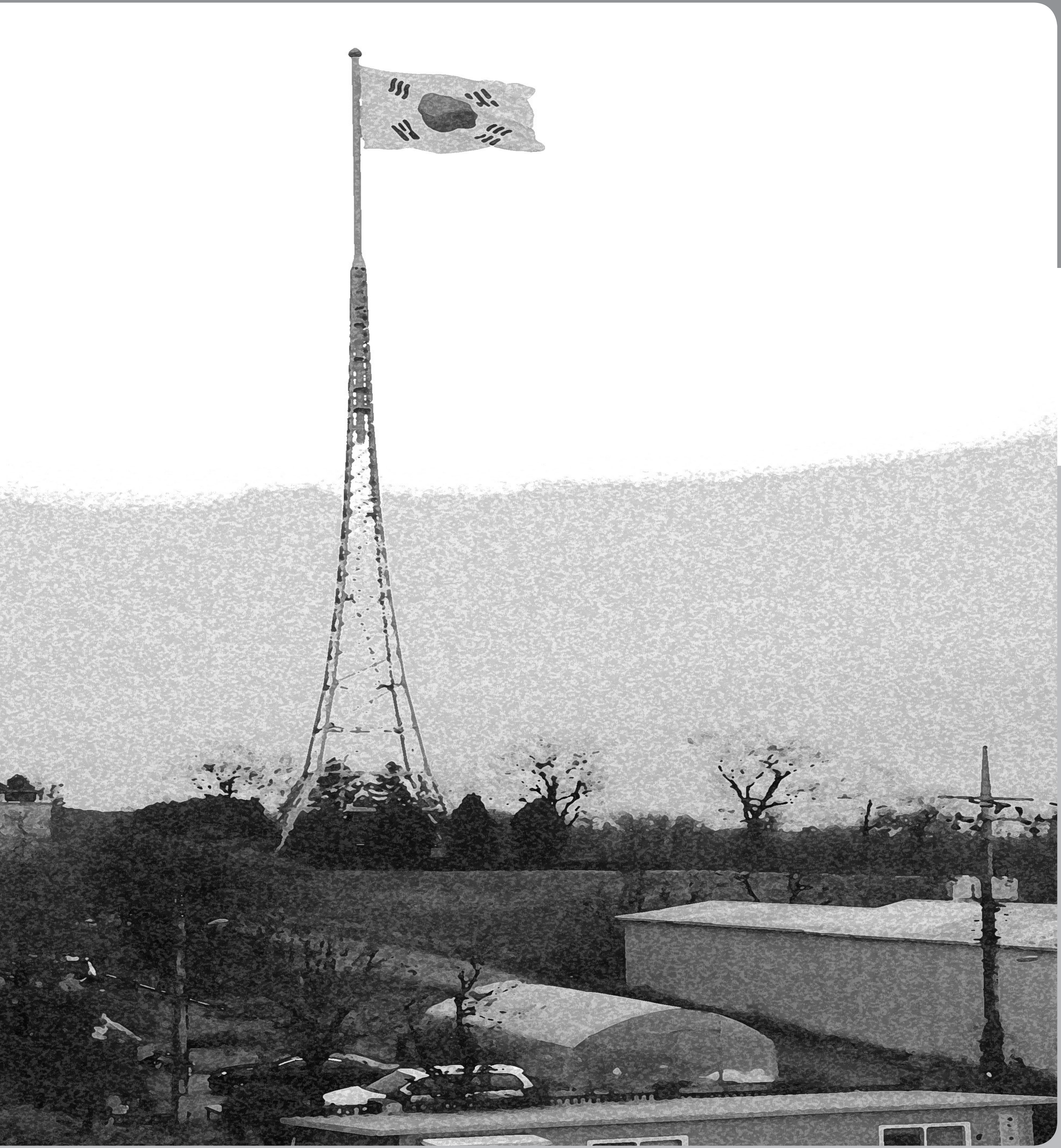


2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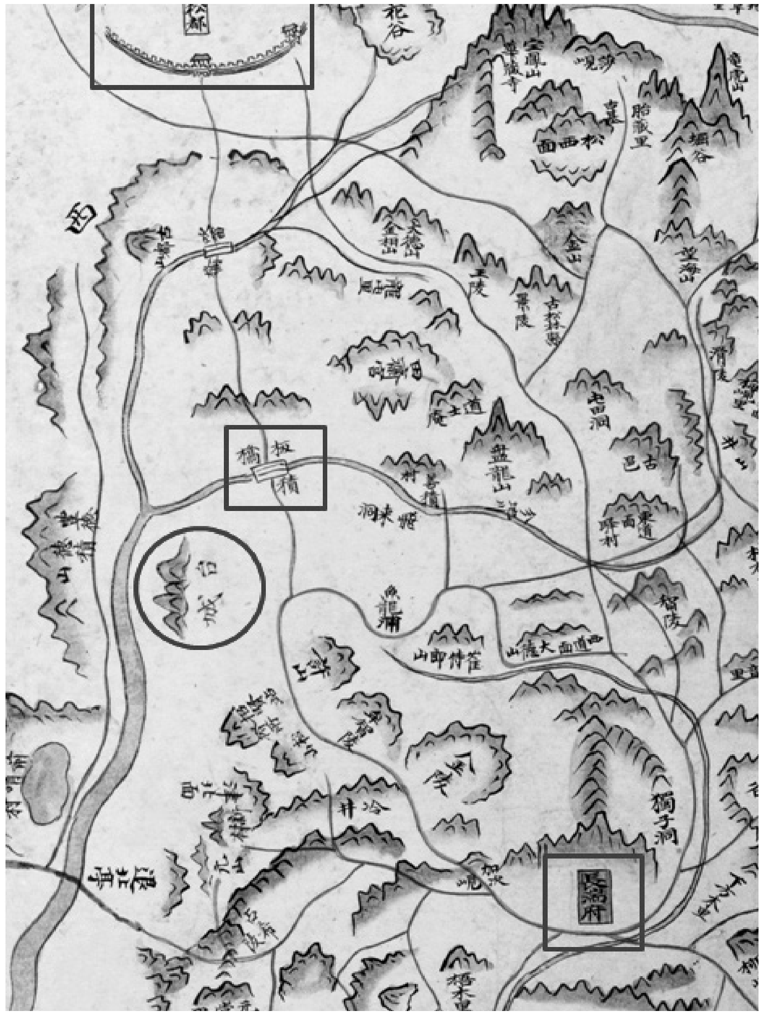
2.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2-1 옛 지도를 통해 본 대성동마을

대성동마을은 주변의 다양한 문화유적으로 보아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마을 서쪽 기정동마을과 맞닿는 곳에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되는 대성(台城)이 남아 있는데, 삼국시대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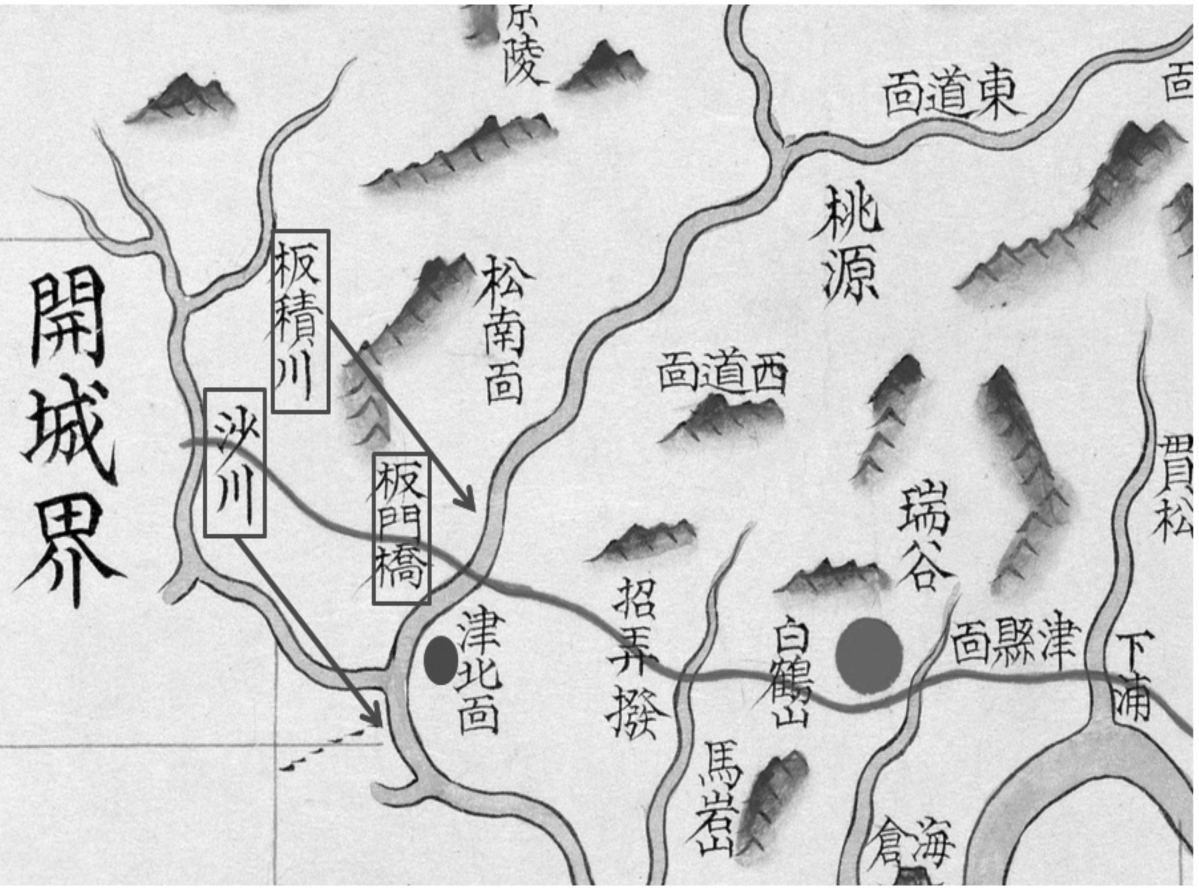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대성동마을이 속해있었던 군내면(郡內面) 일대는 장단군 진현내면(津縣內面)과 진북면(津北面)에 속한 지역으로, 1930년 일제강점기에 군내면으로 통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현내면은 끝이 15리이고, 진북면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진현내면이 관문 동쪽으로 10리 떨어져 있으며, 진북면은 관문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고 개성부와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단읍지』에 보면 진현내면은 읍내면(邑內面)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진북면은 현의 서쪽으로 10리에 위치하여 판문교(板門橋)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으며 개성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대성동마을 인근에 판문교가 있으므로 1930년 이전에는 진북면에 속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고지도를 통해 대성동 주변의 지형지세와 옛 지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지도에는 전통적 자연관에 따른 특징적 산수(山水)와 지형지물이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동마을의 주변환경과 지명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수집한 관련 고지도는 총 5점으로 18세기~19세기에 제작된 지도들이다. 이들 지도의 중심에는 장단부의 '객사'나 '읍내' 등이 표현되어 있고, 지도의 왼쪽 위로는 개성(松都)이, 오른쪽과 아래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 서해로 흘러가는 임진강을 비롯한 주변 산세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해동지도(海東地圖)』 장단부

우선, 1747년에서 1750년 사이에 그려진 『해동지도(海東地圖)』 장단부 지도[118]를 살펴보면 송도(松都) 인근에서 발원한 물이 남쪽으로 흘러오다 분지천(分之川)과 합수하는 곳에 '대성(台城)'이란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주변 산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그마한 산(山)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안쪽에 사천과 등지고 대성이란 표기가 되어 있다. 장단부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 '의주길(義州路)'[119]이 표현되어 있는데, 분지천을 건너는 곳에 '관적교(板積橋)'라 표기 되어 있고 다리가 그려져 있다. 대성동마을은 장단부와 개성을 연결하는 길목에서 조금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동지도』 상, 규장각자료총서, 1995, p.73.
119) 조선시대의 9대 간선로 중 서울~의주를 연결한 제1로이다. 경기도의 영서도(迎曙道), 황해도의 금교도(金郊道), 평안도의 대동도(大同道)의 3역도(驛道)로 이루어진 총 1,080리의 교통·통신로로서, 주요 지선 30개와 연결되고 26역이 분포되어 있었다. 한양~고양~파주~장단~개성~금천~평산~서흥~봉산~황주로 이어지고, 평안도에 들어가서 중화~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의주 등 해안지역의 주요 읍을 따라 연결되었다.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서북지의주일대로(西北至義州一大路)'라는 표제 아래 자연적·사회적 사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두산백과 참조.



장단 지도(長湍 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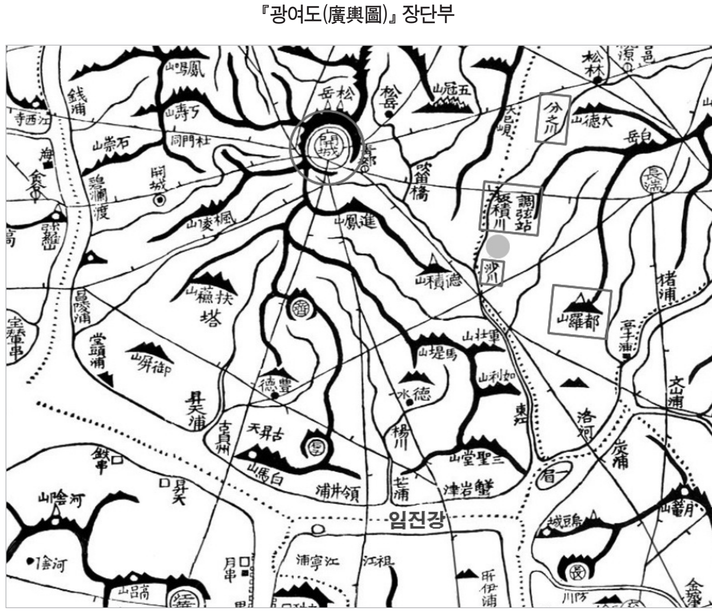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장단 지도(長湍 地圖)』[120]에서는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지명과 다소 차이가 확인된다. 개성(송도)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은 예로부터 사천이라 불려왔는데, 개성과 이 일대의 토질에 모래가 많아 그 하류쪽으로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판적천과 판문교의 위치에 있다.

『장단 지도(長湍 地圖)』에서는 '판적천(板積川)' 아래에 '사천(沙川)'이라 표기되어 있고, 그 한참 아래쪽에 진북면과 '판문교(板門橋)'가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진북면과 대성(台城), 판적교가 한곳에 모여 있다. 하천의 위치와 자연지형, 주변 고을명을 따져보면 판적교와 판문교는 의주길 상에 위치한 분지천을 건너는 동일한 다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적천에 판적교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가정이 맞는다면 『장단 지도(長湍 地圖)』 상에서의 판적천과 사천 표기는 그 아래쪽 진북면 인근 즉, 대성(台城)쪽에 있어야 논리적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도를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광여도(廣輿圖)』 장단부 지도를 살펴보면, '대성(台城)'이란 지명이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지도의 정중앙에 읍내(邑內)가 표시되어 있으며 읍내의 북서쪽에 진북면이 자리잡고 있고, 그 인근에 산(山)으로 그려진 위치에 대성(台城)이란 지명이 보인다. 송도(개성)에서 발원한 물이 태성 인근에서 합류하는데, 바로 사천(沙川)이다. 대성의 동북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는 하천 이름 대신 판적교(板積橋)라 표기되어 있는데, 의주길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적교를 건너 개성과 연결된다. 이상으로 보았을 때 앞에서 논한 『장단 지도(長湍 地圖)』 상의 판적천과 사천의 위치가 잘 못 표기되었음을 본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판문교와 판적교가 동일한 다리임을 알 수 있다.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21]를 살펴보면 서북쪽에 개성(開城)이 보이고, 그 대각선 아래쪽에 도라산(都羅山)이 위치해 있다. 개성시를 관

『광여도(廣輿圖)』 장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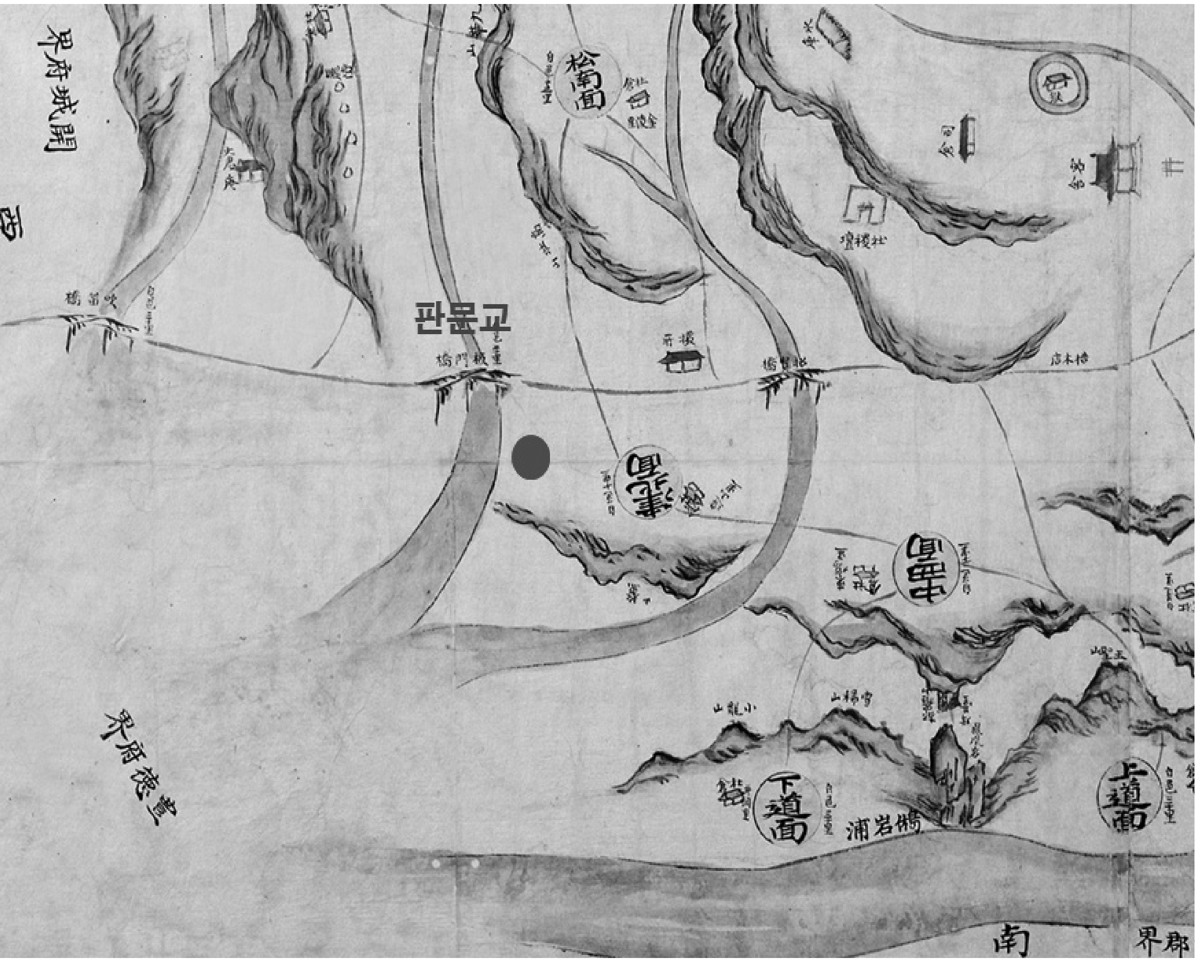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20) 『장단 지도(長湍 地圖)』, 18세기 후반 제작, 채색 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21) 김정호(金正浩), 1861년 제작.

통하는 배천과 오천이 합수한 물이 남쪽으로 흘러 사천(沙川)이 된다. 사천은 판적천(板積川)과 만나 합수하게 되는데, 이 판적천의 상류는 분지천(分之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판적천 바로 옆에는 조현참(調弦站)이란 표기가 있는데, 뒤에서 다룰 조산리 초현장거리로 추정된다. 이곳은 예로부터 조현발소(調絃撥所), 초현참(招賢站)이라 불리던 역참이 있던 곳인데, 처음에는 보현원(普賢院)이 있었으나 후에 조현역(調絃驛)으로 바뀌었고, 세종 때 역을 폐지하였다고 한다. 현재 조현참은 지도상에서만 그 위치만 짐작할 뿐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대동여지도가 제작되던 19세기 말까지도 조현참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장단에서 조현참을 지나 판적천을 건너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있기 때문이다. 본 지도에는 대성(台城)이란 지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장단(長湍)』 고지도(1872년 제작)

위치를 추론해 보면 사천과 판적천 사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872년 제작된 『장단(長湍)』 고지도[122]를 살펴보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보다 주변 산세와 하천, 주요도로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나, 대성동 등의 작은 마을이나, 주요 시설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오른쪽 서쪽으로 개성부계(開城府界)가 표기되어 있고, 그 동편에 진북면이 자리잡고 있다.

장단읍에서 출발하여 진북면을 거쳐 판문교(板門橋)를 지나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 있는데, 『광여도(廣輿圖)』에 표기된 판적교와 같은 위치로 판단된다. 이 지도에서는 대성(台城)이란 지명은 보이지 않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보면, 판문교 남쪽 인근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래는 위에서 살펴본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주요 다리와 하천, 지명으로 대성동마을 서쪽에 북에서 남으로 흘러 사천과 만나는 하천의 명칭은 분지천, 판적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성의 북쪽 의주길 상에서 분지천을 건너는 다리의 명칭은 판적교 또는 판문교(현재의 판문점 인근)임을 알 수 있다. 지도상에 개성(송도)과 장단부(읍내), 진북면 등이 표현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 지명의 고을들이 동일한 생활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4. 대성동마을 개요

지도명	제작시기	다리	하천		주요지명
			개성 방면	연천 방면	
『海東地圖』	1750년	판적교	–	분지천	송도(松都) 태성(台城) 장단부(長湍府)
『長湍 地圖』	18세기 후반	판문교	사천	판적천(오기)	진북면(津北面)
『廣輿圖』	19세기 전반	판적교	–	–	읍내(邑內) 태성(台城)
『大東輿地圖』	1861년	판적교	사천	분지천→판적천	조현참(調弦站) 도라산(都羅山) 장단(長湍)
『長湍』 고지도	1872년	판문교	–	–	진북면(津北面)

122) 『장단(長湍)』, 1872년 제작,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2 자유의 마을이 되기까지

1) 마을 형성과정 개관

【3】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十一月十三日 金曜日

마치소리 요란한 自由의마을

갈대만이 넘실대는 休戰線上의 臺城洞

「X마스」前에 이룩

自治組織의 小獨立國구실하도록

近代化의 理想村으로

【臺城洞에서本社 權五기記者發】초겨울의 갈대만이 바다처럼넘실대는 망망한휴전선 비무장지대안에서 한점 섬이되어있는「臺城동」에는 요즘 성급한 망치소리 삽소리가 요란하다 京畿도長端군郡內면造山리臺城동—요즘 이름으로「자유의 마을」이라고불리는 이 버림받아온 빈촌을『금년「크리스·마스」안으로 완전히 근대화(近代化)시킨다』는 군사정전위원회「유엔」측 계획을 타고 눈을부비며 일어선것이다

대성동문화주택 조성 관련 기사(출처:동아일보, 1960.3.17.)

대성동마을의 형성은 한반도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성동마을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여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성동마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른 시기의 자료로는 조선시대 고지도와 읍지(邑誌), 일제강점기 자료 등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의주길에 인접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이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대성동마을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주민들 중에 후방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마을에는 16세대 60명의 노인과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이후 정전이 되면서 피난을 떠났다 돌아오는 주민도 있었다.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고, 판문점 인근에 위치한 남쪽의 대성동마을과 북쪽의 기정동마을이 전투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두 마을은 한반도에 DMZ에 위치한 남북한 각각의 유일한 마을이 되었고, 대성동마을은 유엔사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1953년에 북한의 기정동과 대성동마을이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은 예전의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의 모습 그대로였다.

1959년 유엔사와 정부에 의해 추진된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가 도입되었고, 유엔사와 정부의 지원 하에 블록주택(문화주택) 3동이 지어졌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이 세워졌다.

이때 지어진 문화주택은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123]에서 무상으로 지어주었는데,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로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공사 담당 회사의 보충 공사가 이루어지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124]

1965년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기와집이, 1968년 5월에는 대성동국민학교도 신축되었다. 1969년에는 대성동마을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이후, 1972년 완료된 제1차 대성동 종합개발에 의해 주택과 도로, 공동 시설, 전기 가설, 경지 정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택 개량과 시설 현대화, 학교 개축, 하천 정비, 상수도 설치, 경지 정리 등의 23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1980년 제2차 대성동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저수지 신설, 농경지 정리, 주택현대화 등 현재 대성동마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성동마을은 두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종합개발의 배경에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남북한이 체제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것인데, 북한의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이 그러하듯 남한의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도 북한을 향해 남한의 우월함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을 것이다. 이후에도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요약하면, 1959년 문화주택건설 및 공공시설 설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전통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73년 대성동 개발사업과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탄생되었다.

123)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미국 대외 원조 기관).
124) "보충공사키로 말썽난 대성동주택", 《동아일보》, 1960년 3월 17일 작성.

표5. 대성동마을 주요 발전현황

연 도	내 용	대성동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전통적인 농촌 자연마을
1951년 1월	1·4후퇴시 대부분의 마을 주민 피난	마을 비움
1953년 8월	휴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기정동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	DMZ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 (자유의 마을 설치, 1953.8.3)
1959년 12월	문화주택(블록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공공시설 설치 (문화주택)
1962년 11월	장단군에서 파주군 군내면 조산리로 행정구역 개편	
1963년	장단군 임진면으로 편입 미 제1기갑사단 민사처 소속 민정반 파견	
1965년	정부지원하에 블록건물 철거하고 기와집 신축	
1968년 5월	대성동국민학교 건축	
1969년	주민등록증 발급	
1971년~72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착수 (주택, 저수지 신축 및 농지 정리)	구마을과 신마을로 나뉨 (새마을주택)
1974년	대성동 정미소 신축	
1976년	JSA경비대대로 민정반 업무 이양 대성동 교회 신축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발생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
1978년	영농한계선 표지판 80개 설치	
1979년~80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1단계) 주택개량, 민정반사무실, 팔각정, 국기게양대 신축 국민학교 2층으로 확장	구마을 사라지고, 마을전체 종합개발 완료 (현대식 주택)
1982년~83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2단계) (저수지신설, 경지정리사업)	
1994년 6월	자유의 마을 대성동 현판 설치	
1998년 10월	마을 복지회관 건립	

2) 국가기록문서를 통해 본 마을의 형성과정

앞에서 대략적인 대성동마을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국가기록문서를 토대로 좀 더 자세한 마을의 변화과정과 그 정책배경, 개발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성동마을과 관련된 국가기록문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하였다. 마을 조성과 관련된 기획, 계획, 예산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마을이 DMZ내에 위치한 관계로 비공개자료도 일부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대성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수집이 가능하였다. '자유의 마을'과 관련된 총59개 문서철 373건의 문서 중 21개 철 130여건 1500페이지 내외 분량의 자료를 시기별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마을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1) 「대성동 '자유의 마을' 종합개발」

가장 이른 시기의 대성동마을 조성과 관련된 자료들은 「분류번호 1143, 1968년, 제목 : 자유마을 대성동지역 조사측량설계」라는 문서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농림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 문서의 수신처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장'으로, 그 내용은 '자유의 마을' 대성동 지역의 경지정리 및 방수제 수축을 위한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1969년 9월 2일자 내부결재 문서, 「자유의 마을 대성동지역 개발사업 조사측량설계 보조금 정산」에 따르면, '측량설계 사업은 미8군의 요청에 의하여 휴전선 북방 완충지대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미8군, USOM, 토련, 농촌진흥청, 농협, 전매청 및 정부간에 수차 회의를 거쳐 그 지리적 및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휴전선 접경마을인 대성동을 농업기반의 마을로 개발하기 위해 1968년 경 경지정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71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성동 개발 관계문서가 확인되는데, 1971년 생산된 문서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표6. 1971년 대성동마을 주요시설 현황

사업명	수량	년도	지원부처	비고
공회당	1동	1959	내무부	노후
목욕탕	1동	1959	USOM 및 보사부	사용불능
기와	36동분	1966~68	USOM 및 보사부	
슬레이트	29동	1956	USOM 및 보사부	
상수도		1958	AFAK	사용불능
전주, 전선	20개	1958	AFAK	
창고	1동			
발전시설	발전기1대, 발동기1대			
TV	2대			
마을문고	1조			
교통수단	미군트럭1대(문산까지)			

1971년 파주군에서 「대성동(자유의 마을)현황」이란 보고 문건을 만들게 되는데, 대성동의 연혁과 인구 및 가구, 농지면적, 문화시설 등이 조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53. 8. 3. 원주민 30세대(160명)를 군사정전 협정 제8. 9항에 의거 동 지구에 거주케 하였으며, 수복 지구와 동 인접 지구의 행정 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1962.11.21. 법률 제1178호)에 의거 파주군 임진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은 장단군 조산리의 일부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구는 농가가 32호로, 남자 92명, 여자 100명, 경지면적은 175ha로 1호당 평균 5.6ha, 문화시설로는 공회당, 초등학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위 내용은 대성동마을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 판단된다. 이후 1971년 7월 29일 경기도에서는 '대성동개발계획'이란 보고문건을 만들었는데, 수신처가 한미1군단장과 내무부장관이다. 문건에는 대성동마을을 자유대한의 대표적인 부락으로 개발한다는 것과 주민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한미1군단과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것, 부락주민의 자조 협동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무상지원을 지양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개발사업 책정원칙으로 반공의식 고취, 경제적 발전을 과시할 수 있는 사업, 부락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밝히고 있다.[125] 즉, 마을개발의 목적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북한을 향해 남한의 우월성을 선전 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71년 내무부에서 작성한 「자유의 마을 개발계획(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마을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126]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 이전 마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 놓았는데, 1959년 유엔사와 정부가 지원해준 시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1959년 이후 마을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회당과 목욕탕, 상수도, 전신주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인 미군트럭 1대가 기록되어 있다.

본 문서에는 대성동마을의 개발목적과 방침, 추진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고, 개발실시요령과 추진일정을 수립해 놓았다. 개발목적을 자유대한의 국력과시와 이상적인 시범부락 건설에 두었으며, 사업은 1972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실시요령에서는 마을의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특히 택지정리와 주택건설에 대한 실시요령에서는 현대식건물로 이축 집단화하고, 건축물이 북괴의 가시권내에 전시되도록 높은 지대에 미관을 살려 배열하라는 지시 뿐만 아니라 주택의 색깔, 지붕의 형태 등까지도 세세히 지침을 정하고 있어 북한을 향한 전시마을의 목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125) 지방 1194-2009, 수신:내무부장관, 참조:개발과장, 제목:대성동(자유의마을)개발계획 수립보고, 발신:경기도지사, 1971년 7월 29일
126) 내무부, 「자유의 마을 개발계획(안)」, 1971.

또한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요령, 통일동산 조성, 방송시설(고성능스피커 설치) 및 홍보활동 등 마을조성의 목적이 대성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북한을 향한 전시마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개발계획은 1972년 1월 10일 주민동의 획득을 시작으로 1972년 연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 개발목적 : 자유대한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이상적인 시범부락으로 개발
● 개발방침 : 부락을 정책적 안목에서 전면 재개발(택지정리 및 시범주택건립)
　　정부지원 하에 경기도에서 시행
　　주민위주로 사업책정, 새마을 가꾸기 사업실시
　　문화복지시설
● 추진계획
· 71년 12월 10일 : 위원회구성
· 71년 12월 15일 : 세부계획수립
· 71년 12월 31일 : 부락현황도 및 개발계획도 작성
· 71년 12월 31일 : 현지회의
· 72년 3월 1일 : 사업착공
● 실시요령
1. 택지정리 :
가. 현재 무질서한 취락형태를 전면 정리하여 새로운 현대식 건축물로 이축 집단화 한다.
나. 취락구조는 지형을 참작하여 모든 건축물이 북괴의 가시권내에 전시되도록 높은 지대에 질서 있게 미관을 살려 배열하고 구획한다.
다. 부락 내 도로는 5M 이상의 도폭을 유지하고 유실수를 가로수로 식재한다.
라. 하수도는 모두 복개하고 도로망에 따라 시설한다.
마. 부락 주변 외곽에 경내 및 자체방어시설을 고려한다.
2. 공동시설
가. 마을 회관은 현 공회당과 병행하여 쓸모있게 설계한다.
나. 마을회관은 측면이 북괴를 바라보도록 하고, 내부구조는 회관, 공동창고, 영사실, 진료실, 휴게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층으로 설계한다.
다. 마을회관 후정에는 광장 겸 공동작업장을 조성한다.
라. 마을회관 옥상에 "자유의 마을"을 상징하는 네온사인 시설을 고려한다.
3. 주택 :
가. 주택은 1세대 독립으로 적정규모로 30동을 건립하되 지형을 참작하여 마을회관 주변과 학교주변에 집단화 한다.
나. 주택의 구조는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옥내에 욕실을 설치하며, 주택마다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다. 주택의 자재는 우미견고한 것을 선택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외부공사(벽)은 가급적 밝은색(백색, 황색 등)으로 도장하고 지붕은 색깔있는 기와(슬레이트 및 시멘트)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축사 및 변소 등 부속건물은 주택과 분리하여 집단으로 건립한다.

4. 영농기계화 :
가. 적 가시지역내의 경지는 가급적 모두 72년 영농기 이전에 경지정리하고 영농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한다.
나. 경지정리계획에는 수리시설을 고려하여 수리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다. 영농기계(트랙터. 경운기, 고성능분무기, 살분무기 등)의 공급 및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국기게양대 :
가. 초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와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게양에 편리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초대형국기는 주기적으로 교체 지원한다. 다. 국기게양대의 위치는 마을회관 전면으로 한다.
6. 통일동산 :
가. 마을회관 주변 부락 중앙의 전망 좋은 장소에 자유대한의 통일을 상징하는 동산을 만든다.
나. 동산에는 통일과 자유평화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건립한다.
다. 동산은 녹지로서 미화한다.
7. 방송시설 :
가. 불가전망 적당한 위치에 고성능스피커(500W)를 설치하여 북괴의 대남방송을 방해하고 부락 내 주민 공지사항을 방송한다.
나. 방송운영 및 관리는 학교에서 담당한다.
다. 방송자료 및 자재는 정기적으로 공급한다.
8. 학교시설 증축 :
가. 학교시설은 가급적 2층으로 설계한다.
나. 오락시설, 운동시설을 완비한다.
9. 도로 주변정화 :
가. 가로수는 유실수로 식재한다.
나. 화단을 설치한다.
10. 뻐스 구입 :
가. 마이크로 버스 또는 대형 버스를 구입한다.
나. 버스의 유지관리는 부락자체에서 해결한다.
다. 버스의 운행은 72.1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긴급히 조치한다.
11. 전화사업 : 세부 실시요령은 별도 시달한다.
12. 홍보활동 :
가. 반공강연, 반공영화 상영, 계몽좌담 등 홍보활동을 정기 및 수시 실시한다.
나. 반공 및 계몽영화 필름, 화보사진, 포스터, 기타 간행물 등을 정기 및 수시 지원한다.
13. 새마을가꾸기사업 :
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부락으로 지정한다.
나. 계획상 미 책정된 분야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보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4. 사업추진 일정
1. 주민동의 획득 : 72. 1. 10 까지
2. 세부실시 계획 보고 : 72. 1. 30 까지
3. 부락현황도 및 개발계획도 제출 : 72. 2. 15 까지
4. 관계부처 현지회의 개최 : 72. 2. 20
5. 택지정리, 주택, 공동시설 설계도 제출 : 72. 2. 28 까지
6. 개발사업 전면 착공 : 72. 3. 1
7. 경지정리 : 72. 4. 30 까지 준공
8. 주택 및 마을회관 건립 : 72. 6. 30 까지 준공
9. 사업진척 상황보고 : 매월 5일까지
10. 입주예정자 현황보고 : 입주예정자 결정 즉시
※ 내부무 작성 「자유의 마을 개발계획(안)」 요약, 1971년

이러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자, '자유의 마을 대성동 민정팀'에서는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수정건의안을 제출한다.[127]

이 중 주택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문제점으로 '옛 집은 허는가?', '새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30동 건립만 언급되었는데 세대 증가 시 대책은?'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세부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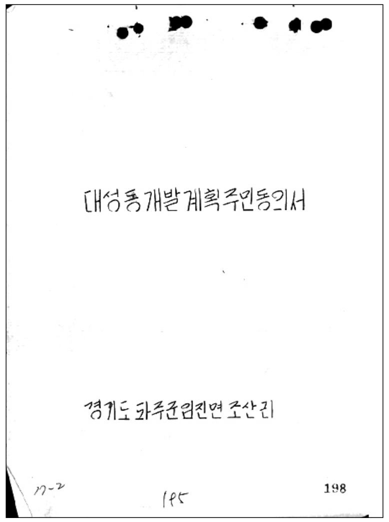
① 인구(세대) 증가에 대비하여 좋은 집은 보강하고 존속
② 새집 소유권 인정
③ 매 가호당 국기 게양대 설치는 비현실적, 관리곤란(국기비치, 사용법 계몽교육)
④ 변소 집단 건립시 불결 우려, 수세식 변소를 욕실과 같이 건립
⑤ ~~주민 설득 후 아파트 건립 무방~~
⑥ 상하수도 고려
⑦ 택지정리 예산 삭감 전용
⑧ 연료대책(난방, 취사) 고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 난에는 ①번 항목에 대해 '기 건립 기존가옥은 견학이 요망됨', '예산이 제한되었음으로 좋은 집은 보수·존속시키고 새집 건립 동수를 줄여 투자 집중', ⑤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주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하며 줄로 그어 삭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헌집을 헐고(새집은 보강조건으로) 마을 앞 토성을 헐면 북괴 가시권에 든다.' '난방은 지하열 이용(숙명여자대학교 물리과 김이청 교수)' 등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사항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의 경우 사용권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은 현재까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토성(대성)도 잔존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위해 지하열을 이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동의를 받게 되는데, 원래 기한인 1972년 1월 10일 보다 5일이나 빠른 1월 5일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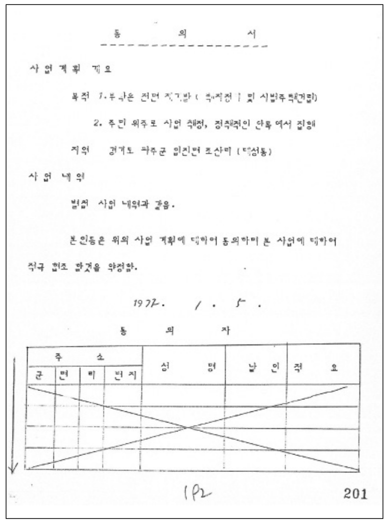
이러한 대성동개발계획과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선무대책 및 특수활동계획 등이 수립된다.

127) 자유의 마을 대성동 민정팀, 「대성동 종합 개발 수정 건의안」, 1971.


대성동개발계획주민동의서

경기도 파주군임진면 조산리

195 198


동 의 서

사업계획 개요

목적 1. 부락은 전면 재개발 (축대정리 및 시범주택건립)

2. 주민 위주로 사업 책정, 정책적인 안목에서 집행

지역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조산리 (대성동)

사업 내역

별첨 사업 내역과 같음.

본인등은 위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동의하며 본 사업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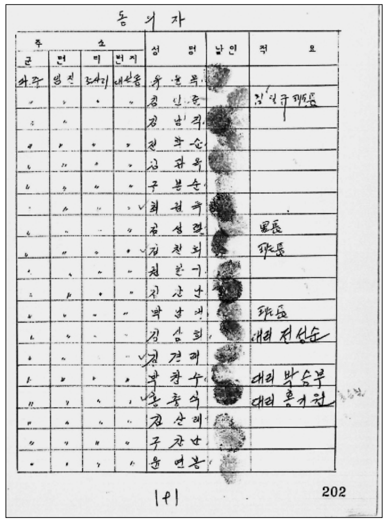
적극 협조 할것을 약정함.

1972. 1. 5.

동 의 자

주소				성명	날인	적요
군	면	리	번지			

192 201


동의자

141 202

1971년 문서 중에는 제목이 「접적주민 선무대책」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주민들의 승공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추진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행사명은 '크리스마스트리 시설'이고, 위치는 '대성동', 점등기간은 '12월 21일 일몰직후부터 연말까지(야간)', 협조는 '문화공보부, 종교단체' 등으로 되어 있다. 본 행사의 목적으로 '연말연시에 접적주민의 승공사상을 한층 더 고취시키고 대북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무대책으로 특정지역에서 성탄절 축하행사를 갖는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1971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경제사정은 그리 차이가 없었고, 양쪽 체제에 대한 경쟁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의 접경지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한다.[128]

거의 비슷한 시기(1971.12)에 문화공보부에서 작성된 「"자유의 마을(대성동)"에 대한 특수활동계획(안)」은[129]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특수활동계획의 목적을 '휴전선 완충지대에 있는 대성동 맞은편 북괴의 "평화촌"에서 주야로 감행하는 대남선전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반공사상앙양,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승, 동시에 북괴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애국관을 고취하고,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대한을 동경케하고, 공산주의 사회체제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도록 한다는데 두고 있다.'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북괴를 능가하는 자유 대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동

128) 발신:내무부장관, 수신:문화공보부장관, 경기도지사, 참조:지방과장, 대공과장, 제목:「접적주민 선무대책」, 1971년 12월 18일.
129) 문화공보부, 「"자유의 마을"(대성동)에 대한 특수활동계획(안)」, 1971년 12월.

대성동 자유의 마을 성탄절 트리 점화식, 1974년 12월 22일(출처:국가기록원)

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반공강연, 계몽 작담, 반공 및 계몽영화상영 등의 특수활동을 실시하며, 세부계획으로 대성동 국민학교 졸업식 지원(졸업생선물, 재학생선물, 주민선물, 태극기 지원, 국민학생용 축구공, 배구공 각 5개 지원) 등 당시 여건으로 가능한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었다.[130] 특수 활동계획은 당시 접경지인 대성동 주민들의 의사나 실질적 요구 사항과는 관계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성동마을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그만큼 이 마을이 최전선의 마을로 북한과의 체제우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북한으로부터의 선전선동에 마을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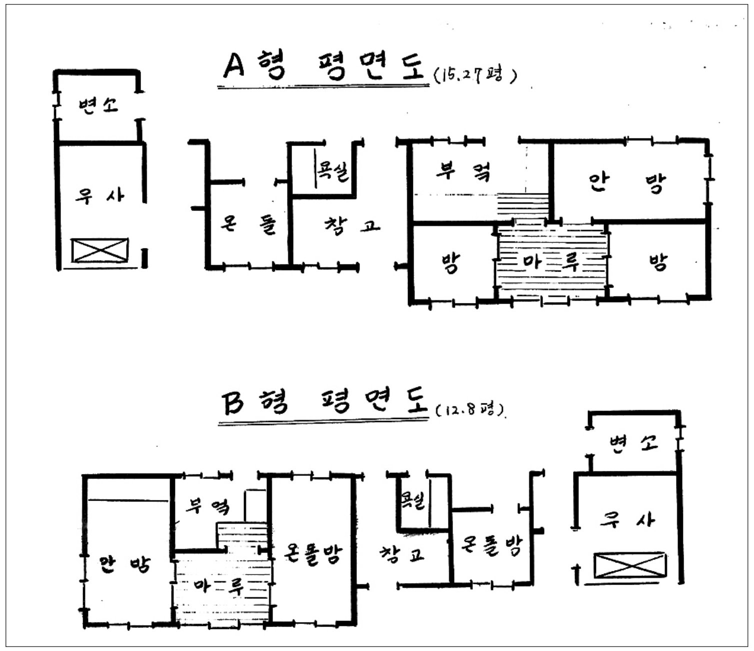
이후 1972년 2월 25일 특정지역 개발 현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성동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대성동 주택 설계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주택평면과 재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 총 A, B, C형의 3가지 유형의 주택이 제시되었다.[131]

이 참고자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변소는 실내가 아닌 부속건물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부엌은 장작을 연료로 하므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며,

130) 협조사항 중앙정보부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원협조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131) 내무부, 「대성동 주택 설계에 대한 참고자료」, 1972.

머슴방이 별도로 필요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필요한 시설로 축사(우사, 계사, 돈사), 개인창고(농기구, 연료, 곡물 보관), 변소(재간 포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지침과 함께 본 문서에는 주택의 평면도가 제시되어 있다.[132)]

이후, 대성동 개발사업은 각계부처와 경기도, UN과 주한미군 등이 서로 협조관계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상호기관 사이에 주고받은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문제, DMZ 안에 있는 대성동마을의 항공사진 촬영문제, 버스 기증 문제, 인부들의 진출입 문제 등, 공사현장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관계로 개발공사가 시작되면서 UN군 및 주한미군과의 잦은 의견교환과 협조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1972년 대성동 개발계획 새마을주택 평면도(출처:국가기록원)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와중인 1972년 5월 13일 주택신축에 대한 대성동주민들의 건의서가 다시 개진되는데, 이곳에 살아가야할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므로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의견서에는 '1956년 유솜과 보사부의 협조로 건축된 슬레이트 가옥(12평)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사용치 않고 창고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인 11~15평 주택 역시 이러한 결과가 예상될 것이며, 이는 국고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건의하고 있다. 1956년에 지어진 주택은 시멘트블록조에 슬레이트를 얹은 가옥으로 보기는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냉난방에 매우 취약하고, 규모가 작아 당시 주민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72년 새롭게 계획한 주택 역시 1956년 주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또한 주민들은 '당초 내무부에서 20평 주택을 약속했는데, 11~15평 주택은 약속과 다르며, 주민들의 현지 실정과도 맞지 않는 매우 협소한 주택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예산 때문에 축소해서 지어야 한다면 차라리 기존 주택을 미관상 보기 좋게 개·보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설득력 있고, 타당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구분	호수	평균가족수	방수	마루	부엌	욕실	사업비	비고
A형	9동	7~11명	3~4	4~5평	3평	1개	동당 1,000천원	
B형	13동	5~6명	2~3	2~3평	3평	1개	동당 700천원	
C형	9동	1~4명	2	2평	2평	1개	동당 400천원	
계	31동						21,000(평균 700천원)	

132)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관련문서를 검토하다 보니 1971~1972년 당시 대성동 개발을 담당했던 내무부 직원 중 개발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후에 제30대, 제3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게 되는 고건 전 국무총리이다.

1972년 완공된 대성동마을 새마을주택
(출처:e-영상자료관, 제목-잘 사는 마을, 촬영일-1972.12.23)

이후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새마을 주택이 예정대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 주택은 인근의 통일촌에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으나, 이 역시 1980년대 초반 대부분 경관주택(전면박공집)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부속건물 신축문제[133)], 마을문고의 기증, 공동축사와 사일로(타워식) 건설, 경운기 지원, 관급자재의 조달요청 등 공사와 관련한 문서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1972년 5월 착공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2년 10월 '준공식 개최계획 문서'가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발송되는데, 준공식과 관련하여 세세한 지시사항과 마무리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다.[134)]

133) 파주군, 「"자유의 마을" 대성동주택부속건물신축계획서」, 1972년 7월 19일.
– 목적:대성동전면개발계획에 의거 주택이축사업에 따른 부속건물 신축
– 규모 및 구조:건평 14.2평, 블록조 슬레이트지붕(25동)
– 시설:변소, 창고(광), 욕실, 일꾼방, 우사 등
134) 발신:내무부, 수신처:경기도지사, 제목:대성동 개발 사업 준공 계획, 1972년 10월 7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성동 개발사업의 준공을 10월 중순경에 가질 예정이니 일자 및 준공행사계획
 (식순, 팜프, 초청범위 등)을 10월 12일까지 작성할 것
2.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의 방향을 다음 원칙에 의거 세밀히 추진할 것
 가. 마무리 작업 원칙 : 10년 전에 개발한 상태로 주변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것
  1) 부락 주변 주택지 내부 등의 환경을 미화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2) 주민을 입주시킨 주택 내부 하나하나를 몇 년 살아온 집처럼 정돈되고 안정된 상태로 손질할 것
  3) 관광지 이상의 조경을 조성할 것
  4) 새마을 정신으로 충만된 자조, 자립, 협동의 주민조직과 부락운영 동태를 유지할 것
 나. 마무리 손질을 해야 할 사항
  1) 주민의 입주 : 조기 주택 배정, 입주 및 집안 정돈
  2) 국기 게양대의 보완 : 상단연장(3M), 지상 게양, 국기 크기 확대
  3) 마을 안길의 포장 및 측구 공사 : 간선 안길 공회당 진입로 포장
  4) 태성의 경지 및 녹지 조성, 태성까지의 포장
  5) 공동창고 부근의 포장 : 공동작업장
  6) 주차장의 포장 및 전망대 설치
  7) 학교 뒤 언덕 손질 및 주택지, 경사지 녹화
  8) 간이 공동축사 및 싸이로 건립 : 공회당 아래
  9) 주택 생울타리 및 화단설치, 마당 블록 깔기
  10) 태성 앞 경지 정리의 조기 착공
  11) 양수장 확장 공사의 조기 착공
  12) 택지 조성지 전면 숲의 정돈 : 시계 소통
  13) 테레비 공급 알선
  14) 73새마을 가꾸기 사업책정 및 착공
3. 도 기획관리실장이 총책임관이 되어 준공 마무리작업에 차질 없도록 현장 지휘할 것. 끝.

이 준공계획 지시가 있은 후 경기도에서는 바로 추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무부에서는 이후에도 수차례의 추가 지시사항 전달(1972년 11월 3일)과 함께, 한전을 통한 송전협조를 의뢰(10.30)하는 등 대성동마을의 연내 완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기록들이 보인다. 하지만, 내무부가 당초 계획한 10월 중순 완공과는 달리 대성동마을의 준공식은 12월에나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해 보면, 10월 중순이면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바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였고, 또한 막바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결과로 추측된다.

1972년 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1972년 12월 21일 「자유의 마을」 개발사업 준공행사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문건을 통해 그 성과를 알 수 있다.[135]

1968년 "대성동지역 조사측량설계"를 시작으로 1971년 마을조성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1972년 5월에 착공하여 불과 10개월 만에 대성동마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1972년 12월 21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공식을 끝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표7. 대성동 자유의 마을 개발사업 준공행사 관련 대통령 보고문건 요약

1972년도 대통령각하 연두순시시에 보고드린바 있는 경기도 파주군 대성동 "자유의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완공하고 별첨 내용과 같이 준공행사를 갖고자 보고 드립니다.

첨부 : 「자유의 마을」 개발사업 준공행사계획
1. 일 시 : 1972. 12. 21(목) 14:00
2. 장 소 : 자유의 마을 현지 공회당
3. 주 관 : 경기도지사
4. 참석범위 : 관계부처 관계관 / UNC 및 8군관계관 / 현지주민 등(약200명)
5. 행사내용 : 준공식 및 부락시찰(별첨 초청장 참조)
6. 개발사업 : 대성동 개발현황(별첨 개발현황 참조)

部處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천원)	備考
合 計		19개 사업	113,330	※사업기간 : 72.5.1 ~ 72.12
内務	소 계	11개 사업	59,375	
	택지정리	7,500평	3,750	하수도 1,500M 암거 9개소
	주택신축	25동(A형 15.2평 B형 12.8평)	31,165	11. 20 입주완료 / 6세대 기존주택 거주슬레이트 53동분 (대한슬레이트공업협회) 유리 60상자(한동판유리)
	부속건물	23동(14평)	10,460	주민부담 6,900
	공동창고	1동(50평)	2,000	
	민정반사무실	1동(20평)	1,280	
	국기게양대	철탑48M	1,920	국기(가로6.75M, 세로 4.5M)
	간이상수도	1개소	1,500	급수장 1, 배수장 1
	스피커시설	1개소	200	
	자유의집 보수		1,400	
	공동탈곡장, 주차장	2개소	3,000	
	간이축사, 사일로	2동	2,700	

135) 발신:내무부, 수신:청와대 비서실장(정무담당비서관), 국무총리실(정무담당비서관), 제목 : 파주군 자유의 마을 개발사업 준공행사 보고, 1972년 12월 20일

部處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천원)	備考
文敎	학교증축	교실, 교무실 등	8,364	교실2, 교무실 1, 교원사택 2동
農村	소 계	2개 사업	14,091	
	경지정리	15ha	11,624	
	경운기	7대	2,467	주민부담 740, 융자 1,727
商工	전기가설	6.5km	9,000	융자
建設	소계	2개사업	20,000	
	砂川 整理	838m	5,000	
	도로 포장	847m	15,000	
其他	마이크로버스	1대	2,500	신진 자동차공업주식회사 기증[136] 준공식장에서 운행
	마을문고	1조(책100권)		사단법인 마을문고본부 기증

(2) 대성동 종합개발계획(1차, 2차)

1975년에는 내무부에서 「민통선북방개발연구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추진경위에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維政會(金昌圭 의원 외 4인)가 민통선북방 시찰결과를 보고(1973. 9. 6)"라 되어 있고, 그 아래에 "閣下께서 민통선북방지역 주민들의 정착의욕과 자립정신을 갖도록 하는 방향에서 恒久對策을 마련하도록 吩咐하심(1973. 9. 6)"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 내무부에 민통선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북방 시찰이 실시된 1973년 9월은 장단군 백연리 통일촌 입주식(1973년 8월)이 있은 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1971~1972년 대성동 개발, 1973년 통일촌 조성사업이 있은 이후이다. 이 두 마을의 사업이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연구를 통해 1975년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고서에는 민통선 북방 마을로 통일촌 2곳과 재건촌 8곳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관계부처(내무부, 국방부, 농수산부)별로 소관업무와 지침 및 개발방향 등이 서술되어 있다.[137]

이후 1978년에 대성동에 대한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된다. '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이 끝난지 불과 6년도 되지 않은 1978년 9월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민통선 북방 전략

136) 준공식 관련문서에 「신진라이트 버스 수증서 송부」라는 문건이 있어 당시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사장'이 마을에 버스1대를 기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군트럭을 이용했던 마을주민에게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긴 것이다.
137) 즉, 이 보고서는 분단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졌던 민통선 인접지역 마을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73년 제1차 종합개발 이후 대성동 전경(출처:국가기록원)

촌 재개발 계획 수립」)이 내무부장관으로 보내진다.[138]

이 문서는 '민통선 북방 전략촌인 대성동 및 통일촌 재개발 계획 수립' 내용으로 중앙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의 문서와 관련하여(발신:내무부장관, 수신:농수산부장관(경지개선과장), 1978년 11월 3일) 내무부장관은 대외비 문건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협조요청을 보내게 되고, 경기도의 건의 및 중앙정보부의 협조요청으로 현지확인 결과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문건에는 1979년 사업추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지정리 90정보, 농업용수시설 6개 사업, 농업기계화사업 2개 사업이 담겨있다. 즉, 이때의 종합개발 주요목적은 농경지개발에 있었다. 이후 여러 건의 문서를 통해 1979년 가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며, 사전에 조사측량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때의 사업결과로 경지정리 면적이 지금의 모습과 같이 조산리 일대를 비롯한 주변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9년 문서에서는 「판문점 주변(대성동) 개발 추진계획」이라는 명칭과 「대성동 종합개발계획」이란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하는 것이 특이한데, 그 이유는 대성동을 비롯하여 그 주변지역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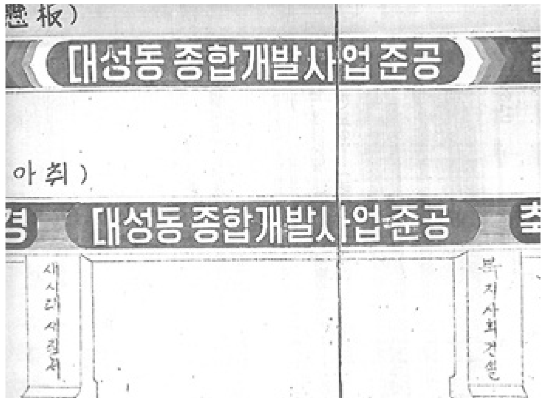
138) 발신:경기도지사, 수신:내무부장관, 참조:특수지역과장, 제목:민통선 북방 전략촌 재개발 계획 수립, 1978년 9월 6일.

(7)사업추진요령
(가) 주택개량사업
〈模型〉
· 주택의 외형은 전시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개발
· 특히 지붕색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원경가시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유의 배치
  · 지붕형은 膊栱型
〈配置〉
· 주택의 크기는 단층주택은 25평 이상, 2층 주택은 35평 이상, 부속사는 12평 이상으로 건립
· 2층 주택은 38가구 중 30%정도 배치
· 택지는 가구당 200평이상 확보
※ 주택배정 및 관리요령에 대하여는 별도지침시달
(나) 민정반 사무실
· 민정반 사무실은 마을 전면에 배치하되 총건평 60평 정도로 하고 지붕위에 望楼設置
(다) 도로
· 마을내 도로는 노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에 편리확보(간선도로 10m 이상, 지선도로 6m 이상)
(라) 가로등
· 가로등은 마을간선도로와 마을 외곽에 설치
(마) 국기게양대
· 현재 마을회관 옆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48m를 민정반 사무실옆으로 이전, 85m 높이로 설치
※ 특수천 대형(12m × 16m) 국기제작
(바) 태성 개발
· 대성중앙에 팔각정 건립
· 대성내 잡목을 제거하고 固囲들 축소하여 석축 및 조경

1979년 1월 11일 중앙정보부는 「판문점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대통령각하 재가 통보」라는 문건을 통해 각 추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수신처는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교부, 농수산부, 건설부, 보사부 등이다. 재개발 사업의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1972년처럼 날로 발전해 가는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에 대항하기 위한 선전마을의 재정비 필요성과 전후 못쓰게된 이 지역의 수많은 농경지를 재개발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139]

이후, 1979년 3월 19일 내무부에서 작성한 「대성동종합개발계획」이란 보고서에는 이 때 추진한 개발사업 내용이 종합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성동 종합개발계획」의 목적과 방침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기간은 '1979. 1~1979. 11. 30'로 되어 있으며, 목적은 '남북 특수지역의 종합개발로, 한국의 국력신장을 대내외에 전시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과 정착의욕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다. 개발방침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은 마을현대화사업, 생산기반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사업추진은 내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협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요사업비는 법적 제한규정에 不拘하고 주민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설계 소요사업비를 소관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1972년 개발사업이 선전마을 조성'에 있었다면 금번의 사업은 마을의 현대화와 주변 농경지의 개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식량자급과 함께 유휴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휴전선 주변에 대한 농경지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1981년 제2차 종합개발 모습(출처:e-영상역사관)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준공식 현판안 (출처:국가기록원)

이 문서에서 '농경지정리, 수리시설, 영농기계화사업(농수산부)'과 '간이합수시설사업(보건사회부)', '하천정비사업(건설부)'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마을조성과 관련된 '마을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내무부)', '학교강당증축 및 환경정비사업(교육부)'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문서 7항에 사업추진요령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도 주택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시된 부분은 북한을 향한 전시효과였다.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2층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국기게양대를 더 높게 재설치하는 등의 계획은 다분히 북한 지역 기정동에 대한 경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계획 하에 1979년 3월 27일 현지측량을 실시하게 되고(1979.3.27. 내무부→농수산부, 대성동종합개발사업 현지측량 실시) 이후 수차례의 관계기관회의를 거친 후

139) 1979년 1월 30일 농수산부, 수신:내무부장관,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추진 계획서 제출'이란 문건에 따르면, 사업내용으로 경지정리 200ha, 집수암거부양수장 1개소, 스프링클러 2개소, 농업기계 11대, 개간 10ha 등이 명기되어 있다.

대성동 주택입주식(1980년 9월 19일, 출처:국가기록원)

1979년 7월부터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하게 된다(1979.7.28., 경기도→농수산부장관, 대성동지구 경지 정리 사업 시행).[140)]

이때 이루어진 종합개발은 1972년 종합개발에 비해 공사규모나 내용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농경지정리,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등),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대성동마을의 근간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1980년 9월 16일 경지정리 총공사비 산정이 끝이 나고, 대성동마을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1980년 12월 대성동마을 준공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대성동 주택입주식'과 '대성동종합개발사업준공' 관련 문서를 통해 마을현대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식은 1980년 8월 28일 내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980년 9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보도자료 제목은 "非武裝地帶內 自由의 마을 台城洞住民36世帶 住宅入住式擧行"이다. 유엔군이 관할하던 비무장지대의 특성상 이들 기관과 협조

140) 대성동개발에는 내무부와 국정원, 보사부, 교육부, 농수산부, 건설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파주군 등의 지방정부, 유엔사와 미군 등이 관여하고 상호 협력하며 진행되었다.

관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와 포상 수여도 하게 된다.[141)] 「대성동(자유의 마을)주택입주식 결과보고」에 따르면, 행사는 1980년 9월 19일(금), 11:00~13:00에 대성동마을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내무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특수지역과장, 경기도 회계관, 파주군수, JSA, 미8군 공병참모부 작전계획과장, 문교부 공보과장 등) 등이 참석하였고, 현지주민 229명이 참석하였다. 주택건설사업을 맡은 현대건설 직원 및 인부 100여명과 민정반 장병 50여명도 참석하였다고 한다.[142)] 입주식이 11:00~11:45분, 테이프절단이 11:45~11:50 순으로 진행되었고, 주택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에 감사하고 대북심리전효과 앙양 및 주민정착의욕 제고, 자력발전능력 촉진을 들고 있다.

입주식 3달 후인 12월에는 '대성동 종합개발사업준공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종합개발의 1단계사업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것이다. 내무부에서 1980년 12월 15일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간의 실적과 준공식 거행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보도자료 제목은 「자유의 마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준공식 거행(비무장지대 내의 유일한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 標準 福祉農村으로 變貌)」이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종합개발사업은 내무부주관으로 농수산, 건설 등 관계 6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을현대화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등 22개 사업 총 6,508백만원을 투입하여 2년간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현대화 사업(내무부, 경기도)으로는 주택개량 36동(27~34평), 공동이용시설 4개 사업(도정공장, 공동창고 등), 환경정비 7개 사업(팔각정, 어린이 놀이터), 민정반사무실 1동, 국기게양대 1개소를 설치하였고, 생산기반조성사업(농수산부)으로 경지정리 20ha, 농업용수개발 2개소, 농지정리 15ha하였으며, 문교부와 보사부, 건설부는 대성동국민학교 신축(196평 2층)과 상수도시설 및 하천정비 3,797m를 완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준공식은 1980년 12월 18일에 거행되었으며, 새롭게 신축한 대성동국민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식순은 경과보고(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유공자 포상(장관 표창 및 감사패),

141) 발신 : 특수지역과, 수신 : 총무과장, 제목 :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유공 외국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대상자 :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중령 제임스 맥리 쿠스만 사령관, 내용 : 대성동 개발사업 지원, 대성동 민사행정을 통한 안보정착 및 친선도모 등, 1980년 9월 2일. / 발신 : 특수지역과, 수신 : 총무과장, 제목 :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유공자 포상, 대상자 : '경기도 기획관리실 주사보 한기택(사업촉진 및 현장지도 감독 철저), 경기도 회계과 기원보 김용환(현장에 주재 주택시공감독 철저) 등), 1980년 9월 2일.

142)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으로 정부로부터 대성동마을 주택신축공사를 입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式辞(경기도지사), 기념품전달(내무부, 경기도), 테이프절단, 현장시찰(학교 → 민정반 사무실 → 국기게양대 → 공동창고 → 공동정미소 → 주택 → 팔각정)로 이루어졌으며, 기념품으로는 자전차 1대(이장용), 벽시계 1개(민정반 사무실)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위 내용에서 특히, 내무부에서 시행한 마을현대화 사업과 교육부의 학교신축 등은 2014년 현재의 대성동마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시설들이다. 이때의 종합개발이 지금 대성동마을의 근간이 된 것이다.

이후 「'82년도 대성동 농업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서」라는 보고서(농업진흥공사, 1982. 1)를 통해 2차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7월~1981년 12월' 사업을 '1단계 공사'로, 1982.1~1983.6 까지를 '2단계 공사'로 설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2단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은 농업용수 관계시설, 경지정리 확대, 농지증대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2단계 사업은 1983년 완료되는데, 마지막 문건은 주민대표 김O래 씨가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내는 청원서와 이에 대한 농수산부의 회신으로 끝을 맺는다. 그

표8.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실적 보도자료(1980년 12월 15일, 출처:국가기록원)

주관부처	사업별	물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22개 사업	6,508	
내 무 부	마을현대화사업	14개 사업	1,225	
	주택건립	36동	886	단독(27~34평) 34동 / 2호연립(57평) 2동
	민정반사무실	1동 / 86평	61	
	공동이용시설	4개사업	97	공동창고, 도정공장 등
	국기게양대	1개소 / 85m	33	기존 48m
	환경정비 기타	7개 사업	148	팔각정, 안길포장 등
보 사 부	간이상수도시설	1개사업	28	
교 육 부	학교신축	1개사업(196평)	197	2층 건물/ 본관증축·수선, 미화담장, 조경공사, 도로포장, 비품구입 등
농수산부	생산기반사업	5개사업	4,399	
	경지정리	200ha	974	80~83년까지 시행
	농업용수개발	저수지 2개소	3,292	
	개간	15ha	50	
	농업기계화	10대	39	
	기타 스프링클러	6ha	44	
건 설 부	하천정비	3,797m	659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준공식 현판안(출처:국가기록원)

내용은 마을 주민들은 방축골 및 화성골(소지명) 약 70정보에 대한 개발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농수산부의 입장은 동지역의 여건, 시행상의 절차 등의 문제로 추가시행은 불가하고, 현재 계획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끝을 맺는다.

이상으로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된 "대성동 종합개발"과 1978~1983년 6월까지 이루어진 "대성동 종합개발"에 대해 국가기록문서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해 대성동마을은 3차례 큰 변화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전쟁 이후 마을에 주민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1958~1959년 유엔

과 정부의 지원 하에 건설된 문화주택과 공회당 등의 공공시설을 통해 1차적으로 마을에 변화가 생겼고, 1971~1972년 대성동종합개발을 통해 마을의 기본틀(마을의 공간구조)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1978~1980년 대성동종합개발(1단계) 사업을 통해 지금의 마을 모습(도로, 현대식주택, 팔각정 등)으로 현대화 되었다. 이러한 대성동 개발의 목적은 DMZ인근의 유휴농경지 개발과 함께 북한을 의식한 '선전마을개발'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국가기록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9.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요 변천과정

시 기	내 용	주택
6·25전쟁	마을 파괴	–
1953년 8월~1968년	1953년 8월 휴전협정 및 주민 귀환 1959년 문화주택, 공회당,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	기와집, 초가집 일부 문화주택(시멘트블록집)
1971년~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	새마을주택(시멘트블록집)
1978년~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1단계)	양옥집(1층집, 2층집, 연립 등)
1982년~1983년	대성동 종합개발(2단계)	–